

뉴제주일보

호감과 비호감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마주친 그 사람, 동근 얼굴에 선한 인상까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좋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분명히 나타나는 단서에 의존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직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TV를 틀면 연일 공직자 투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고위 공직자 등 알만한 사람들의 부정한 거래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안 그래도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커녕 매일 실망만 안기는 요즘이다.

지금 당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직사회가 '비호감'일지라도 '호감'으로 '비호감'을 이겨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호감이 됐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말이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기초공사는 돼 있다. 바로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이다. 애초에 제정 당시 연달아 발생하는 공직 비리로 공직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상호 간 신뢰



한재영
제주시 구좌읍
부읍장

를 회복하고자 시행한 것이 아니던가.

물론 출범 당시 제시했던 청렴함의 청사진에는 못 미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 달라지면 된다. '작은 성의 표시'에 대한 극도의 경계는 물론 '직

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만 갖는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든든한 도우미가 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직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청렴함'을 믿고 타인의 '정직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의 청렴함을 배반할 수 없고, 타인의 정직함에 누를 끼칠 수 없어 각자가 청렴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청렴해지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한다.

127 X 137 mm

공직자의 잠재력? '청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현경자

최근 핫이슈로 'LH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공직자들이 잠시 되집어 볼 점이 무엇인가?

청렴은 어쩌면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일상 생활함에 있어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행실을 갖추고,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성품과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 중기시대 문신·문인이었던 이규보(1168~1241)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재산을 축재하는 일 없이 살았다.

이규보가 37세에 당시 재상 최선에게 관리로 추천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면 "선비가 벼슬을 하는 것은 구차하게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정사에 반영시켜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길을 찾고 왕실에 힘을 보탬으로 길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며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한 듯 하다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형성된 청탁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해진 만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은 국민들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공직자인 내 자신에 대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부정부패한 관리라는 불명예만 뒤집어 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203 X 160 mm

친절 온도에 대한 생각



강 태 준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친절에도 사람마다 온도가 있다. 과연 나의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도의 따뜻함으로 다가갈까? 혹은 차갑게 느껴질까? 냉정하게 봐 어떤 민원에게는 따뜻함 혹은 어떤 민원에게 차가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동료 주사님이 업무 상담 중에 민원인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했다. 옆자리에 있는 나는 민원인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봤다. ‘상대방에게 친절하려면 경험, 그리고 업무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는 못 해줘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에게 “안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민원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

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본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게 된다. 먼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먼저 건네며 다가간다면 좀 더 친절하고 민원 입장에서 신속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절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첫번째 실력을 갖춰야 되고, 두번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마지막 세번째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 51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친절 온도는 몇 도인지 한 번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116 X 156 mm

LH사태로 본 공직자 청렴 인식 전환의 필요성



김재완
서귀포시
예래동

최근 LH 사태로 매일같이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이 경기광명, 시흥자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샀다는 제보가 접수돼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태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왔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동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공직사회의 부패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

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윤리법, 부패방지법 강화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틀보다도 가장 큰 핵심은 공직자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즘 사회에 국민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의식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뒤틀로나 뇌물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부패근절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 대민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윤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직자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 행위기준을 높여 전체 공직사회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청렴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 해야 한다.

108 X 141 mm

청렴은 작은 친절에서부터



김창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가장 강조되는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과 '친절'인 것 같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금품수수 및 비리 등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에게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탐욕으로 인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소한 배려를 통한 친절한 모습은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충분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어 청렴한 공직사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친절은 민원인에게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이다. 사

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도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응대해주는 사람이 밝은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상대 직원분을 배려하게 됐던 기억들이 있다. 반면에 다소 무뚝뚝한 태도로 응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밝은 미소를 띤 민원 응대는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민원인이 방문하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담당 팀으로 안내해드리는 행동, 밝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기, 업무를 다 보시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작지만 민원인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당연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다.

108 X 141 mm

공직자의 의무 '청렴'



김수빈
서귀포시
효돈동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에서 공무원 의무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다. 나는 6대 공무원 의무 중에서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지니고 있어야 할 의무로 '청렴의 의무'를 꼽았다.

최근 공직사회 청렴 문제에 관한 이슈들로 사회가 한때 떠들썩했다. 최근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에 떠오르는 일부의 청렴문제 이슈들은 국민이 바라보는 국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청렴도 인식을 낮추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씩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민원과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민원분들의 공무원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이라 느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의구심을 가지고 행정처리에 항의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다.

이때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민원들의 이해를 위해 친절히 설명드리고, 모든 시민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이 이뤄짐을 확인해드린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믿지 못하고 행정처리에 의심을 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시민과 공직사회의 신뢰가 행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면접을 보던 그 당시 나는 '청렴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청렴을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청백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며 '청렴'의 자세를 하루하루 약속하며 앞으로 공직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108 X 141 mm

독자기고

요즘 체육계 내부에 소위 '갑질'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가 주요 뉴스를 장식한다. 이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직 내부의 집단 따돌림,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각종 폭력과 같은 사회의 어두운 내면과 과정들이 감춰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청렴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청렴은 공적인 일어든 사적인 일어든 결과가 아니



안성찬

과정의 청렴을 높이자

라 과정의 청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과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법제, 규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과정의 청렴을 높일 때이다.

과정의 청렴은 거창한 의미가 아니다. 그 시작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 관행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부터가 청렴의 시작인 것이다.

미국의 로키산맥 해발 3000m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한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은 듯한 모습으로

자란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문제에 대해 쉬쉬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낸다면 우리 사회는 청렴한 명품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다.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청렴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녹여내어 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236 X 89 mm

부패 방역은 곧 청렴

서귀포시 표선면



김형록

코로나 전후로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중 생활 속 자주 쓰는 용어에 '방역(防疫)'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이 그렇다. 코로나 이전 '방역(防疫)'이란 단어는 보통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등 가축들의 전염병을 막을 때 쓰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용어가 되었다.

TV 뉴스, 신문을 보더라도 연일 '방역수칙 준수'라는 표현이 항상 강조되어 나온다. 최근 1년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어휘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방역(防疫)'의 한자어 뜻은 '막을 방(防)' '전염병 역(疫)'으로 '전염병을 막는다'라는 의미다. 코로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일컫는데,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또한 전염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부패가 옆 사람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조직 전체로 퍼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패에 물들어버린 조직으로 변모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를 저지름에도 심각한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들도 다 하는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문제다.

최근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례

가 공공조직에 속출하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도화선이 되어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 발표 전후로 성산지역 부동산 투기의심 공직자를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 전체에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不正)'이 쌓이면 '부패(腐敗)'한다. 다시 말해 정직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썩는다. 썩으면 전염병 돌듯이 타인에게 전파되고 이를 막지 못하면 공멸한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는 등의 방역을 하듯 부정부패(不正腐敗)의 방역은 곧 모두가 청렴(清廉)한 생활을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에게 '청렴(清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선 일반인보다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개인 또는 본인의 이익보단 국민 전체가 득 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부패 방역이다. 개인의 부정부패를 막고 타인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각별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하다. 코로나 방역에 백신이 있다면 부패 방역에는 청렴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세상을 바꾸는 용기, '공익신고'

매년 12월 9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공익신고의 날'이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0여 개국이 반부패협약에 서명한 날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고, '공익신고의 날'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적극 보호해 더욱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기리기 위해 지정·선포됐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배신자 또는 부적응자로 인식하는 주변의 시선과 내 부고발자라는 낙인 등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꺼려져 왔다. 이에 국민 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을 위해 용기 있는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사회를 바로 잡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양원영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있다. 또 국민 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와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행위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 공익신고가 가능해졌다.

제주도 역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과 공직윤리의 엄정한 확립, 신속한 부패현안 대응과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를 강조해오고 있다. 청렴·공정한 제주도정을 위해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가동해 공공 부문 관련 민원, 공직자 비위행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공공·민간 부문 간 유착 관련 부패신고 등 공익제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부패 없는 '청정 제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27 X 136 mm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박진영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나비효과' 이론을 우리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에 적용시킬수 있다면 개인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공직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기에 청렴의무 이행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렴과 관련된 추천 도서 중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의 저자가 가장 강조한 말은 공직자의 '사명감'이다. '사명감'의 사

전적인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공직자의 주어진 임무 속에는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 근절과 부패 척결, 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청렴 의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청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의식 전환을 통한 공감대 구축으로 자발적인 자정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상의 하달식 청렴 의무 강조가 아닌 동료 간 수평적·상향적인 분위기로 의무 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직원 상호간 격의없는 토론 문화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고, 개인의 핵심 가치들과 청렴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참여 중심의 청렴 교육을 실천해 분수 효과를 이끌어 낼 때 진정한 공직 기강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중심에 선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당당한 모습으로 청렴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116 X 146 mm

신뢰는 청렴에서 부터



오 영 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서로가 보편적인 규범을 좇아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신뢰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게 해 유연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갈등, 분쇄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즉 신뢰는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렴은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공무

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부패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로 우리가 김영란 법으로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과 같은 반부패 청렴정책과 청백리제도가 있다. 이러한 청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장약용선생의 목민심서는 무엇을 말하는 책임니까” 내가 2년전 공무원 시험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이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에 대한 행정에 관한 지침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덕목이 바로 청렴이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청렴(淸廉)은 목민관의 본부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공직자가 청렴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108 X 141 mm

가까운 곳에 청렴이 있다



나의 의견

오예원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기마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영화 베테랑(2015) 속 명대사다. 가진 것은 부족해도 땀땀하게 살자는 의미인 동시에, 가진 것이 없으면 조금은 부도덕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기도 하다. 영화 속 대사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즉, ‘우리 사회는 청렴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혜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까지 의미하며, 즉, 전달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작은 씨앗이 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을 바꿔 ‘이 정도가 최선일까?’,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공직자의 공무는 최종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의 수많은 가치가 변하고 강조되지만 청렴이란 두 글자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궁극적인 가치이자 덕목이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영화 속 질문으로 돌아가 나에게 물어본다. 아직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선뜻 내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긴 공직생활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려 한다.

133 X 127 mm

'기본'으로서의 청렴



나의 의견

강형탁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백인걸은 당시 동서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군비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대사헌 재임 시 권신 등의 비위를 논하다가 사임하는 등 공직자의 공정하고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을 강조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을사사화 때 윤원형이 국왕의 밀지라 주장하며 윤임 등의 대운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어린 시절 막역한 친구였던 허자가 이를 문제삼지 말 것을 권했으나, 백인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 일을 그르칠 수 없다며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해 홀로 상소를 올려 비판했다가 하옥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선조 대에 청백리로 뽑힐 정도로

결백한 성품을 가졌던 백인걸은 나라 일은 마땅히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특히 늙은 어머니를 생각함으로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고, 더욱 바른 몸가짐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시류에 휩싸이지 않고 뜻을 굳건히 가졌던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모습은 의와 청렴 결백을 위해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백인걸의 '기본'이었다.

누구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패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는 없을 것이다.

현연, 지연, 학연 등과 얽혀 어찌다 보니, 혹은 이쯤이야 하는 집단의 잘못됨이 결국은 부정부패라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청렴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기본'이 더욱 소중하고 작금의 현실에 필요한 이 유다.

116 X 149 mm

나의 청렴 멘토, 근검



김은석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나의 멘토는 재상(宰相) 안자(晏子)이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초(楚)나라 왕은 사신인 안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제나라 출신 범죄자를 안자 앞에

서 심문했다.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에 능한 모양이지요?” 왕의 의도를 알아챈 안자는 “굴이 화남에서 나면 굴이 되지만 화북에서 나면 탕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나라에 간다면 도둑질을 하게 되나...” 초왕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굴화위지(橘化爲枳)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왔다.

그는 재상이 된 뒤에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았으며, 식사 때 상에 고기 반찬이 오르는 경우가 드물었고, 식술

들에게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한 번의 옷을 30년이나 계속해서 입어 ‘안영호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했다.

제주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 상승하며 가장 좋은 점수로 최고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 LH에서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어, 도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시선은 그리 좋지 않다.

청렴을 외치는 우리들의 아우성이 자칫 ‘공염불(空念佛)’로 비춰질 공산(公算)이 있다.

그럼 우리가 청렴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검한 생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109 X 131 mm

청렴,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인 것이다.

청렴은 사전적 의미에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고, 반대적 의미로 부정부패는 '생활(生活)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나타내는데 그 만큼 청렴과 부정부패는 함께할 수 없는 반대적 개념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바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다.

공직자의 부패 진행과정은 '작은 호의가 나중에 심각한 부정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미국의 사회학자 '셔먼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성의의 표시로 간단한 커피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것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대접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그 반대급부로 은연중에 호의와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박규원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민원인에게 대가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작은 호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호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공직자 스스로 자문해보고 작은 호의에 대한 한계를 자신의 철학으로 명확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은 호의에 대한 한계를 공직자 스스로 명확하게 설정하기 또한 쉽지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 작은 호의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비록 작은 호의 일지라도 정중히 거절하지 않는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처럼 나중에는 그 작은 호의가 돌아킬 수 없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평상시에 청렴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하고 자기 철학의 부분으로 일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때문에 나부터 꼭 청렴하고 투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오늘도 다짐해 본다.

127 X 136 mm

청렴은 공직자의 사명이다



부은숙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이행됐으면 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대규모 조직으로 통합할 때 제도적으로 보완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LH 일부 직원의 투기 여파로 전공직자 대상으로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찬성하지만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지나친 과잉 규제라 생각된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조선 시대 제주로 유배온 추사 김

정희 곁에는 8년 4개월의 유배기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버팀목'이 돼 준 동갑내기 친구 초의선사, 역관이며 제자 이상직, 제자 허련 등이 있었다. 이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며 길고 긴 세한의 시간을 예술적 승화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조선 시대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유배형에 처한 김정희의 고난 속에서도 이를 견디게 해 준 벗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세한도는 완성될 수 있었다. 또 강직한 신념으로 관직에서의 업무를 처리해 조선 시대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어 오늘날 공직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의 공직자들도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곳곳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도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공무원의 청렴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공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리질 수 있다. 공직자는 부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다.

117 X 151 mm

청렴의 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 의 웅

우리 공직자에게 청렴해라, 하자. 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말을 수없이 귀가 따갑게 듣고, 시책을 만들고, 기고를 쓰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러니 짜증나고 귀찮을 수도 있다.

청렴은 함시 몸에 배여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결만 번지르한 텅빈 감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을 받을 때 같은 분임인 어느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온갖 유혹과 회유도 있었고, 동료, 상사 등으로부터 어리석음의 비난도 있었지만 내가 유일하게 잘한 일은 내 자신에게 함시 부끄럽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청렴한 공직생활의 길을 걸어왔다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그분의 감명 깊은 말이 기억이 난다.

이분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행동이나 일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택한 가장 멋진 방법이 바로 '청렴'이 지닌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및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투기 행위로 언론에 국민들의 분노와 사회적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는 정황이듯이 다시 한번 공무원의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청렴은 우리 공직사회의 중심의 축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소다.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폐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청렴함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내 자신 인생의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지혜의 길이요 합리적이고 당당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공직자들이 반부패를 넘어 행정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책임감, 도덕성, 정직함 등을 모두 갖춘 완전체의 의미로 재 탄생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202 X 195 mm

독자기고

적극행정, 결국은 청렴으로부터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온 나라가 들쭉였다. 잇을 새 없이 터지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사건을 접할 때마다 실망감과 상실감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이에 '이례충돌 방지법' 통과시켰지만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



김혜정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투명성, 책임성 속에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청렴을 실행하는 것은 어떻게

는 '청렴생활'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법률을 잘 지키고 뇌물을 받지 않는 등 무위(無爲)로써 이행하는 것은 청렴에

공정한 업무처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 강조되지 않는 사회'란 표현은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청렴성이 인간의 기본 자질·소양으로써 당연히 갖춰져 있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써, 그리하여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주무관>

177 X 99 mm